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53)(8/20/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5 장 삶 전체를 고치려고 열심을 냄, 11 절

살전 5:6-8 -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계 3:15-16 -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1. 늘 당신의 삶의 종국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과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덕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하였다면, 그것은 최악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계 3:15-16). 반면에, 당신의 마음이 열심으로 불타고 있다면, 큰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덕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든 일도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열심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된 일을 하며 땀 흘리는 것보다도, 악이나 정욕에 맞서 싸우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작은 잘못들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씩 점점 더 큰 잘못들로 빠져들게 됩니다. 낮 동안 유익하게 보낸다면, 언제나 그 저녁에는 기쁨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고, 분발하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하든,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피십시오. 자신에게 엄격할수록, 그 만큼 더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해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 간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특히 우리의 마지막을 늘 의식해야 한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설교(마 24-25 장)와 사도바울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살전 5 장)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대한 의식을 늘 가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살전 5:1-3 -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며,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일지 모르는 그 마지막을 늘 염두에 두며 오늘을 사는 것이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성도는 지금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된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칭찬 받도록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바로 서야 한다. 바울은,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살전 5:5) 때문에 마지막 날이 도둑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살전 5:4-5). 그 말은 성도들이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관계 없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이며 빛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다.

살전 5:6-8 -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은 로마 군병들의 갑옷의 한 부분으로서 목부터 허리까지 덮는 가죽 보호대였다. 이 가죽 보호대는 가슴과 배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했다. 바울은 호심경을 믿음과 사랑에 비유하고 있다.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처럼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망은 투구에 비유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성도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쓴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 때의 소망은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의 열정이 미지근해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계 3:15-16 -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의 뜨거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말도 될 것이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약 4:8 -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도가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열정은 사그라 들 수 밖에 없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주를 향한 열정을 잃을 때는 유혹당하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쉽다. 뱃세바를 범할 때의 다윗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다. 중요한 것은, 순도 높은 신앙,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는 신앙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고난도 이기게 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사 26:3 -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주 안에서 믿음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지켜 나가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종말을 의식하는 오늘의 삶,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것을 다짐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 뜨거운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옵소서.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자연재해의 문제로 큰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